

코스콤 비정규지부 서울시내 5곳 고공시위 돌입

⌕ 민주노총 | ⌚ 승인 2007.12.31 11:25

종각역 사거리 교통 CCTV탑 농성조합원 폭력진압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 등 다섯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공시위에 돌입했다.

12월31일 오전 7시30분 경 서울 종각역 사거리 교통 CCTV탑 위에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 황 모 조합원(27세)이 올라가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오전 10시55분 경 6명 경찰에 의해 폭력진압당했다. 경찰은 오늘 밤 보신각 타종행사를 핑계삼아 농성 노동자를 강제로 진압했다. 황 조합원은 분당에서 근무 중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창덕궁 비원과 경복궁, 을지로 2가 사거리, 그리고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 앞 CCTV탑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각 한 명씩 올라가 있다.

고공농성 중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코스콤에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증권전산업무를 맡아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 비정규직 부당 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날로 파업 111일째를 맞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살을 에는 25M 고공에서 고통 받는 조합원들을 아래에서 보고 있지 않다면 가슴이 메어지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통분하고 “111일 동안 추운 비닐 천막에서 생활을 감내하면서 코스콤 위장도급 및 중간착취 등 불법적 만행을 규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미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까지 금융과 정치 중심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정규직 통곡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태 해결에 무관심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이어 “현 고공 시위가 신속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지부가 직접 위장도급, 중간착취, 사기계약, 용역폭력 등을 고소(10/31)한 것이 신속하게 수사되고, 코스콤 이종규 사장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성실한 교섭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시작] 성명서 전문

비정규직에게는 2008년 새해에도 희망은 없고 착취와 차별만 존재한다.

현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며, 정권 말기로 관심에서도 멀어져 정권이 바뀌어도, 새해를 맞이해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분노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절규가 금일 서울 도심 종각을 포함하여 5곳에서 산발적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11일 동안 추운 비닐 천막에서 생활을 감내 하면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중간착취 등 불법적 만행을 규탄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미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지금까지 금융과 정치의 중심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정규직의 통곡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사태 해결에 무관심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노동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코스콤은 과거의 불법적 비정규직 운영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한 채 시간 끌기만을 자행한다면 교섭을 요청하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파업 말고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현재 지부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악법 때문에 급여조차 나오지 않는 절대 절명의 경제적 고통을 참고 있으며, 집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따뜻한 잠자리마저 포기한 채 차가운 도로바닥에서 코스콤의 불법적 만행을 규탄하고 있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해에는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가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벽 끝으로 내몰아 세우는 코스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금일 발생한 목숨을 담보한 조합원들의 돌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코스콤에 있으며 조속히 사태해결에 임하지 않으면 이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스스로도 감내 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 “ 인간답게 살고 싶다! ~ ”

살을 에는 25M 고공에서 고통 받는 조합원들을 아래에서 보고 있자니 가슴이 메어지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전에는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 매고 지냈던 평범한 회사원들이 100여일 동안 용역강패와 경찰 공권력의 폭력적 탄압 속에서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주장하는 것을 사회는 반드시 인간적인 가슴을 품고 귀 기울여봐야 한다.

십수년간 최소생계비에 가까운 급여와 노동 착취에도 묵묵무답 성실히 일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지부 조합원들이다. 코스콤은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오랜기간 정규직 급여의 1/3~1/4에도 미치지 않는 봉급으로 부려먹던 비정규직들을 26개의 업체에서 5개의 업체로 통폐합하고, 강제적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합법적 도급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여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줄여서 차별을 없애 보자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이에 지부 조합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5/19) 1차 파업(7일간)을 통해 기본합의서(7/4)를 쟁취하였지만, 이후 코스콤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여 조합원을 분노케 하였다. 더군다나 코스콤은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일체 교섭을 거부하고, 기본합의서 마저 파기하는 만행을 저질러 지부는 2차 파업(9/12~)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남성 조합원(19일 동안)과 여성 조합원(22일 동안)의 살을 깎는 7M 고공단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코스콤이 과연 인간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국회도 법도 노동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코스콤을 규탄 한다!

이미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 판결(12/27)이 있었지만 이는 현 사태를 축소은폐 한 것에 불과하며, 국정감사때 노동부장관이 밝혔듯이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명의 변호사는 위장도급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미 코스콤에 고용된 상태에 있고, 1명의 변호사는 고용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번 가처분(12/11) 내용에서도 일반적인 가처분과 다르게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법원이 코스콤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코스콤 사태는 노동부, 국정감사 및 법원에서조차 코스콤의 사용자 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정규직 노조 또한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기 싫다 ”

지금 우리나라의 880만 비정규직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해고의 위협 속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5월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놀란 것은 우리의 요구가 “근로기준법” 준수였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3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회에서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들이다. 더군다나 코스콤 사태는 보호받고 있지 못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정규직이 오히려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우회가 비정규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배당받는 현실이 밝혀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붉은 머리띠를 한 노동자이기 전에 아들 딸 들의 아버지요, 부모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했던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콤의 불법을 법에 호소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 씩 걸리는 현실, 백일이 넘는 파업사태에도 계속되는 사회적인 무관심, 매일 용역깡패와 대치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독기만 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 분노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

지부 조합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 코스콤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 ! ”

“ 코스콤은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 ! ”

“ 정부와 국회는 이 땅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철폐하라 ! ”

착취에 그늘진 새해를 앞두고 ...

2007. 12. 31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표끝]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